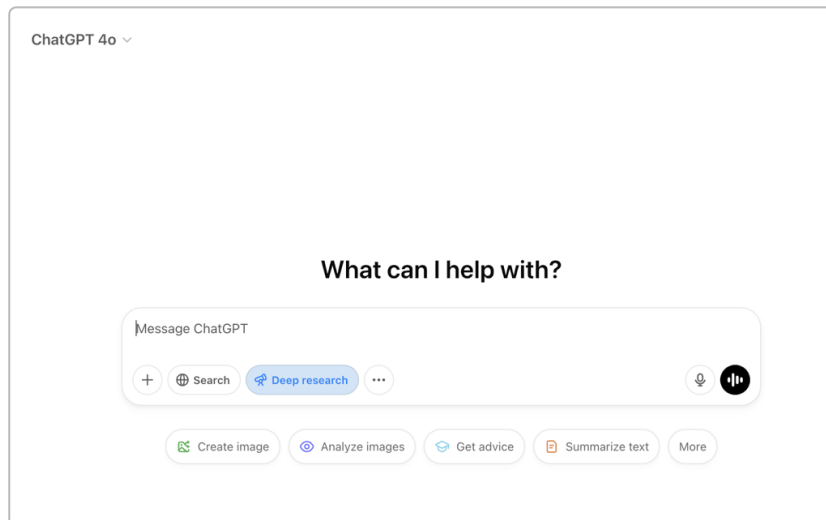


OpenAI Deep Research 서비스 심층 조사

1. 서비스 개요 및 출력 형식

OpenAI **Deep Research**는 ChatGPT에 새로 도입된 에이전트 기반 심층조사 모드로, 인터넷 상의 방대한 정보를 다 단계로 수집·분석하여 **종합적인 보고서**를 생성해 줍니다 ①. 사용자가 질문이나 지시사항을 입력하면, ChatGPT의 Deep Research 에이전트가 자체적으로 웹검색을 수행하고 관련 웹문서, 이미지, PDF 등을 읽어 요약·추론한 뒤 마치 연구 분석가가 작성한 보고서 수준의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① ②. 이 출력 결과는 **모든 주장에 출처가 명확히 표시**되며, 모델의 사고 과정 요약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뢰성과 검증 용이성을 높였습니다 ③. 실제로 한 초기 사용자는 Deep Research의 결과물이 “일반 대학 연구 논문 수준의 품질에 이미 근접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④.

Deep Research의 기본 출력 형식은 **주제별로 구조화된 장문의 보고서**입니다. 예컨대, 서론과 개요, 세부 항목별 섹션, 표나 목록 등을 통해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며, 각 문장이나 데이터 뒤에는 해당 근거 자료에 대한 링크 형태의 인라인 인용을 달아줍니다 ③. 필요에 따라 그래프나 표 이미지 등 **비주얼 자료도 보고서 내에 삽입**할 수 있어, 복잡한 정보도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⑤. 이러한 보고서는 연구 논문 또는 전문 분석 리포트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자는 ChatGPT UI에서 바로 확인하거나 **서식이 유지된 PDF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⑥. 예를 들어 ChatGPT Plus/Pro 사용자는 Deep Research 결과를 PDF로 저장하면 표, 이미지, 하이퍼링크 인용 등이 그대로 포함된 문서로 얻을 수 있습니다 ⑥.



위 이미지는 ChatGPT 대화입력 창에 **Deep research** 모드를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일반 대화 대신 Deep Research 버튼을 눌러 이 모드를 활성화하며, 이렇게 하면 ChatGPT가 질의를 받고 약 5~30분간 백그라운드에서 조사를 수행한 후 결과물을 한 번에 제공하게 됩니다 ⑦ ⑧. 대화 도중 좌측 패널에는 “검색 → 판독 → 분석” 등 에이전트의 진행 상황과 방문 중인 웹 페이지 목록이 실시간 요약되어 표시되며, 완료 후 **채팅 창에 최종 보고서 형태의 답변이 나타납니다** ⑦. Deep Research 모드를 통해 얻은 답변은 일반 ChatGPT의 빠른 응답과 달리 **시간을 들여 깊이 있게 작성된 답변**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⑧. OpenAI는 “간단한 조회에는 기존 검색 답변을, 더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때는 Deep Research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⑨, 실제로 일반적인 ChatGPT 웹 검색 기능이 수 초 내에 짧은 요약과 출처 링크를 주는 반면, Deep Research는 수십 분간 다각적으로 정보를 파고들어 **간결한 사실 전달을 넘어 맥락과 근거가 충실한 보고서**를 산출합니다 ⑧ ⑩. 요약하면, 단순 Q&A에는 실시간 검색이 유용하지만, **Deep Research는 느리지만 그만큼 체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결과물을 제공**하여 연구나 업무 산출물로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⑧ ⑩.

한편 Deep Research에는 “경량 버전”(lightweight) 모델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Deep Research 본래 모델은 높은 연산 비용 탓에 유료 사용자에게 월간 쿼리 제한이 있지만, 제한 초과 시에는 경량 버전으로 자동 전환되어 응답을 제공합니다 ¹¹. 경량 버전은 OpenAI의 소형 모델인 o4-mini 기반으로 동작하며, **응답이 더 짧아지는 대신 핵심 품질은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¹¹. 예를 들어 Pro 사용자가 월 쿼리 한도를 모두 쓰면 이후부터는 경량 모드로 답변하되, **내용의 깊이와 정확성은 가급적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분량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¹¹. 이 경량 모드는 비용 효율성을 높여 Plus 등 하위 요금제나 무료 사용자도 제한적으로 Deep Research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¹² ¹³. 단, 복잡한 주제에서는 축약된 답변이므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Deep Research의 출력은 “풀 버전”의 상세보고서부터 “경량 버전”의 간략보고서까지 존재하며, 사용 상황에 따라 자동 조정됩니다.

2. Source 연결 기능 분석 (웹, GitHub, Dropbox, SharePoint 등)

Deep Research는 **연결된 데이터 소스**를 통해 더 폭넓고 개인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연결하지 않은 경우, **오픈 웹 검색이 주 정보원**이 됩니다 ¹⁴. 이때 ChatGPT는 공개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내용을 읽어 답변을 구성하며, 사용자 업로드 파일이 있다면 그 또한 참고합니다 ¹⁴. 예를 들어 별도 연결 없이 “최근 AI 업계 동향을 분석해줘”라고 하면, 인터넷 뉴스 기사나 블로그 등을 직접 찾아가 읽고 요점을 정리해 답변하는 식입니다. 이는 기존 ChatGPT의 웹 검색(Browsing)과 유사하지만, Deep Research 모드에서는 **수백 개의 출처까지 폭넓게 탐색**하고 자료들을 깊이 있게 비교·종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¹ ¹⁰.

OpenAI는 보다 **개인화된 심층조사**를 위해 2025년부터 ChatGPT에 여러 **서드파티 커넥터**를 베타 도입했습니다. 현재 Plus/Pro/Team 사용자는 **GitHub, Dropbox, OneDrive/SharePoint** 계정을 연동하여 Deep Research의 정보 소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¹⁵ ¹⁶. 연결 방법은 ChatGPT 설정의 **Connected apps** 메뉴에서 해당 서비스를 OAuth로 인증하는 것으로, 이후 Deep Research 모드 질의 시 해당 소스를 자동으로 검색에 포함시킵니다 ¹⁷ ¹⁸.

- **웹(Web)**: 연결 기본값은 공개 웹입니다. 별도 데이터 연결이 없을 때 Deep Research는 **인터넷 상의 뉴스, 위키, 논문, 블로그 등 공개자료**를 폭넓게 찾아 사용합니다 ¹⁴. 예컨대 “비만 치료 최신 동향에 대해 종합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면 PubMed 논문, WHO 보고서, 뉴스 등을 모두 찾아 내용을 통합합니다. 다만 웹 정보는 품질 편차가 크므로,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프롬프트에 “학술 논문과 공식 통계 위주로 인용해줘”처럼 원하는 출처 유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용자는 **Deep Research가 위키백과나 2차 출처를 인용**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가급적 1차 자료와 신뢰할 만한 사이트만 사용하도록” 프롬프트를 주었고, 일부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¹⁹.) 기본적으로 Deep Research는 **찾은 웹자료의 진위나 권위까지 완벽 판별하지는 못하므로**, 사용자는 최종 보고서의 출처를 검토해 신뢰성을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²⁰.

- **GitHub**: GitHub를 연결하면 **자신의 저장소 코드와 문서를 실시간 질의**할 수 있습니다 ²¹. Deep Research가 GitHub connector를 통해 접근 권한이 허가된 저장소의 데이터를 검색하여, **코드 파일, README, 위키, 이슈 등에서 질문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 인용**하는 식입니다 ²¹. 예를 들어 “우리 프로젝트에서 이미지 업로드를 처리하는 백엔드 로직이 어디 있지?”라고 물으면, ChatGPT가 해당 리포지토리의 코드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관련 함수를 찾고 해당 코드 조각과 경로를 **직접 인용하여 설명**해줍니다 ²² ²³. 또한 “repository의 구조를 요약해줘”처럼 물으면 폴더와 주요 파일들의 역할을 분석해 알려주고, “README에 명시된 사용법 요약해줘”라고 하면 README 내용을 읽어 답변합니다. **GitHub 커넥터는 개발자나 팀이 코드베이스를 빠르게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거대한 프로젝트에서도 원하는 기능 구현 부위를 바로 찾아주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²⁴. (예: “파일 업로드 기능을 구현한 부분을 보여줘” → 저장소 전체를 키워드 검색해 해당 코드 스니펫과 파일명을 답변). 현재 GitHub 검색은 **컨텐츠 키워드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파일명 직접 지정 검색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²⁵, 질문을 자연어로 하면 ChatGPT가 적절한 키워드로 여러 번 검색하여 관련 코드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²³. GitHub 연결을 통해 얻은 코드/문서 내용은 다른 웹출처와 마찬가지로 인용표시와 함께 제공됩니다 ²².

- **Dropbox**: Dropbox를 연결하면 **본인 계정의 전체 폴더를 심층검색**하여, 문서, PDF, 이미지 등 저장된 자료에 기반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²⁶. 예를 들어 “최신 고객 피드백 요약본을 보여줘”라고 하면 Dropbox에 업로드된 프레젠테이션이나 문서 파일을 찾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인용해 답변합니다 ²⁴. 오픈AI 공식 안내에 따르면, **팀 단위 활용 사례**로 마케팅 부서는 Dropbox의 캠페인 결과 리포트들을 한꺼번에 분석해 다음 분기의 전

락 인사이트를 얻고, 제품 팀은 PRD(제품 요구사항 문서)와 사용자 피드백, 로드맵 문서를 종합 검토하며, 법무 팀은 계약서와 NDA 폴더를 검색해 갱신 조건이나 미서명 항목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26 . 이처럼 Dropbox 커넥터는 **기업 내부 자료나 개인 문서 아카이브까지 AI가 읽어서 답변**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일일이 자료를 뒤지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필요한 파일을 수동으로 업로드할 필요 없이, “**내가 접근 권한 있는 파일들**”을 ChatGPT가 대신 찾아 읽어주므로 편리성과 보안성이 모두 향상됩니다 26 . (Dropbox나 OneDrive 연결 시에는 관리자가 OAuth 앱 사용을 승인해야 할 수 있으며, 연결 후에도 사용 권한 범위 내의 콘텐츠만 검색합니다 18 27 .)

- **SharePoint/OneDrive:** Microsoft 365 환경을 사용하는 조직의 경우, SharePoint 및 OneDrive 커넥터를 통해 **회사 내부 지식 베이스**에 대한 질문도 가능합니다 28 29 . 예컨대 SharePoint에 저장된 회의록, OneDrive에 있는 엑셀 리포트 등을 ChatGPT가 검색하여 **기업 내부 정보에 근거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년 Q4 매출 데이터와 주요 인사이트 알려줘”라고 하면 재무팀 공유 드라이브의 관련 엑셀과 보고서를 찾아 요약해줄 수 있고, “마케팅 팀의 최신 브리핑 자료 보여줘”라고 하면 SharePoint의 프레젠테이션을 찾아 콘텐츠를 인용합니다. 이는 **기존 사내 검색으로 찾기 어려운 심층 정보도 대화로 손쉽게 확보**하게 해주며, 사용 권한이 필요한 문서는 관리자 사전승인 절차를 통해 보안이 유지됩니다 30 31 . 현재 이 기능은 베타로 제공되며 EEA 등 일부 지역 Plus/Pro 계정에는 제한이 있지만, Team/Enterprise 사용자는 글로벌 이용 가능합니다 29 .

정리하면, **별도 소스를 연결하지 않을 때 Deep Research**는 공개 웹만 활용하지만 14 , 사용자가 GitHub 코드나 Dropbox/SharePoint 문서를 연결하면 **질문에 따라 웹 + 개인/조직 데이터 모두 활용**하여 훨씬 맞춤화된 조사 결과를 산출합니다 18 22 . 이러한 연결 기능은 일반 ChatGPT가 지식 cutoff 이후 알지 못하는 사적 데이터까지 다룰 수 있게 해주므로, **회사 내부 보고서 작성, 코드 리팩토링 계획 수립, 개인 연구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실무 시나리오**에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데이터 접근 면에서 OpenAI는 “Deep Research가 **사용자 파일을 영구 저장하지 않고**, 키워드로 해당 서비스에 쿼리하여 필요한 문서를 실시간 분석할 뿐”이라고 밝혀 보안 우려를 완화했습니다 27 . 또한 Plus/Pro 사용자의 연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아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며 32 , 조직 관리자가 원하면 연결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3. Deep Research의 활용 가능성 – 단순 조사 외 사용처

Deep Research는 처음에는 전문 연구자나 지식 노동자를 위한 **정보조사 도구**로 소개됐지만 33 , 활용 범위는 그 이상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작업**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어떤 주제에 대해 조사해서 알려줘”라는 용도 외에도, 고도화된 기획, 논리적인 글쓰기, 미디어 분석, 프로그래밍 설계 등 복잡한 과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미처 생각지 못한 몇 가지 활용 예시와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 **고급 기획안 및 전략 수립:** Deep Research는 특정 주제에 대한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사례 연구** 등을 종합해 주므로, 사업 기획이나 정책 제안서 작성에 유용합니다. 예컨대 “**챗봇 업계 주요 경쟁사의 기능 비교 및 우리 제품의 차별화 전략 제안**”을 질의하면, 각 경쟁사 관련 뉴스를 찾고 기능을 표로 정리하며 우리에게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전 회의용 리포트**를 생성해줄 수 있습니다 34 10 .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쓸 때 Deep Research에 “**유사 프로젝트의 실패/성공 요인 조사**”를 부탁하면 관련 사례들을 찾아 분석해주므로, **근거 기반의 설득력 있는 기획안**을 만드는 데 도움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혼자 자료 찾고 정리하면 며칠 걸릴 작업을 몇 시간 내로 완료해주기 때문에, **비즈니스 전략 수립이나 정책 연구** 분야에서 유용성이 높습니다 35 .

- **논리적 보고서 및 글쓰기 보조:** 학생이나 작가, 직장인들은 Deep Research를 이용해 **체계적인 글 작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기후변화가 XX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리포트를 쓴다면, Deep Research가 방대한 논문과 데이터를 모아 구조화된 초안을 제시해줍니다. 사용자는 이를 토대로 자신의 관점을 첨가하거나 서술을 다듬어 최종 제출물을 완성할 수 있죠. 한 미디어 평론가는 Deep Research 결과물이 “**표면적인 웹검색 결과를 넘어 ‘왜, 무엇을, 어떻게’까지 다루어준다**”고 평하며, 얻은 자료가 **너무 상세해서 다 못 볼 정도**라고 했습니다 36 . 그만큼 **자료의 깊이와 논리 전개가 탄탄**하여, 사용자가 이후 내용을 요약하거나 일부만 발췌해서 써도 될 정도입니다. 다만 AI가 작성한 문장은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인용된 출처를 검증해가며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미디어/여론 분석 및 콘텐츠 리뷰:** Deep Research는 인터넷상의 **뉴스 기사, SNS 포스트, 블로그 글** 등 공개 자료를 폭넓게 읽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특정 이슈에 대한 미디어 동향이나 여론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간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의 주요 쟁점과 변화”를 물어보면, 수많은 뉴스와 평론을 읽고 **빈도 높은 키워드, 찬반 논지, 주요 사례** 등을 요약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홍보 전문가나 연구자가 단기간에 **매스미디어 내용 분석**을 해야 할 때 유용하며, 경쟁사 브랜드에 대한 소셜 여론을 파악하거나 (예: “트위터와 레딧에서 제품 X에 대한 고객 반응 요약”), 특정 주제의 담론 변화를 추적하는 등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영화나 서적 등 **콘텐츠 리뷰/평론을 종합**하는 데에도 쓸 수 있는데, 여러 리뷰글을 모아 공통으로 언급되는 장단점을 뽑아주므로 개인 블로거가 리뷰를 작성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코드 및 프로그래밍 설계:** 앞서 소개한 GitHub 연결을 통해, Deep Research는 **코드 이해와 개선**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규모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포크한 개발자가 “이 프로젝트에서 인증 절차 흐름을 설명해줘”라고 하면, 관련 코드를 빠르게 파악하여 **아키텍처 요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팀원이 기존 코드베이스를 학습하거나, 오래된 코드의 **리팩토링 계획**을 세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Deep Research 자체의 웹조사 능력을 이용해 “고가용성 아키텍처 모범 사례 조사”, “Python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메모리 최적화 방법” 등을 물어보면, 관련 기술 블로그와 스택오버플로우 Q&A, 논문 등을 찾아 근거와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줍니다. 이렇게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자는 설계에 반영하거나, 실제 코드를 작성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AI가 코드까지 생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깊이있는 이론적 배경과 예제 코드 조각**을 찾아주므로 고난도 프로그래밍 문제 해결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창의적 활용:** Deep Research의 능동적 조사/종합 능력은 일상생활의 궁금증이나 개인 프로젝트에도 색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한 기술 저널리스트는 “솔직히 난 Deep Research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일상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일례로 **식품 성분 조사, 피부케어 성분 비교, 자동차 부품 이해, 미세플라스틱 연구, 소셜 집필 배경조사, 육아 정보, 조경 조언**까지 다양하게 활용한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37 38}. 가령 그는 화장품 유행 성분인 우지(beef tallow)와 달팽이 점액 성분의 효능을 Deep Research로 찾아보고, 자신이 쓰던 보습제와 비교하여 과학적 효과를 따져보았습니다 ^{39 40}. 또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면 차량 매뉴얼과 정비 관련 자료를 찾아 그 **원인과 대응법**을 미리 공부해 두어, 정비사와 대화할 때 더 준비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41 42}. 취미로 소설을 쓰는 경우에도, 원하는 시대와 장소의 생활상이나 언어를 조사해 **배경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³⁸, 정원 관리를 취미로 하는 사람은 지역 기후에 맞는 잔디/식물 관리법과 곤충 퇴치법 등을 찾아 **DIY 조경 지식을 습득**하기도 했습니다 ^{43 44}. 이렇듯 Deep Research는 전문가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며, “세금 문제, 주방의 개미 퇴치, 고양이들 합사 문제 해결” 등 온갖 일상 이슈에 대해서도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³⁷. 결국 **일반 검색으로는 한계가 있는 복잡한 궁금증**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이고 신뢰도 있는 답을 얻고 싶다면** 누구나 Deep Research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⁴⁵.

4. Deep Research에 특화된 프롬프트 작성법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은 Deep Research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중요합니다. 일반 ChatGPT와 마찬가지로 요청을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결과 품질이 크게 좌우되지만, Deep Research 모드에서는 특히 **조사 범위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모델이 자율적으로 탐색할 여지를 적절히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46 47}. 여기서는 목적에 따른 프롬프트 구성 전략과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1) 정보조사 지향 프롬프트:** **조사 주제와 범위, 우선순위를 분명히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해 알려줘”보다는, “기후변화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알려줘. IPCC 보고서와 최근 학술논문을 우선 참고하고, 중요한 통계를 인용해줘.”처럼 요청하면 모델이 무엇을 찾아보고 정리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⁴⁶. 즉 **연구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두면 (식량 안보, 최신 연구, IPCC, 통계 등) Deep Research가 검색과 분석을 더욱 **초점 있게 수행**합니다. 또한 위 예시처럼 신뢰도 높은 출처(국제기구 보고서, peer-reviewed 논문 등)를 우선 사용하도록 지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OO 사이트만 봐” 등 **세부 규칙을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⁴⁷. 너무 경직된 지시는 AI의 **창의적 탐색 능력**을 제약해서 유용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신 꼭 제외하고 싶은 출처나 선호하는 자료 유형을 가볍게 언급하는 선에서 밸런스를 맞추세요. 예컨대 “위키백과나 개인 블로그보다는, 공식 통계와 전문 연구를 위주로 인용해줘”라는 식입니다.

• **2) 기획/분석 지향 프롬프트:** 복잡한 기획서나 설계, 분석 작업을 의뢰할 때는 **문제를 몇 가지 하위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면 효과적입니다. Deep Research 자체가 내부적으로 멀티스텝 플랜을 짜서 수행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관점**을 미리 불러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스타트업의 경쟁사 분석 리포트를 만들어줘”라고 할 때, 추가로 (1) 시장점유율/투자동향 비교, (2) 제품 기능 및 가격 비교, (3) 경쟁사의 마케팅 전략, (4) 우리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제언 등을 Bullet 형태로 프롬프트에 포함하면, 모델이 **조사 플랜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법은 **메타프롬프팅**과 유사한데, 먼저 GPT-4 등을 통해 “내가 Deep Research에 입력할 최적의 프롬프트”를 구상해볼 수도 있습니다 ⁴⁸. 복잡한 주제일수록, 대화를 통해 원하는 아웃라인을 잡은 후 그걸 Deep Research에 던지면 더욱 체계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다만, Deep Research 모드 자체도 중요한 파라미터를 놓치면 **시작 전에 사용자에게 추가 질의(form)**를 해와서 방향을 잡는데 ⁴⁹, 이때 성실히 답변하여 요구 사항을 확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⁵⁰. (Tom's Guide 사용자는 “질문 후 챗봇이 되묻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해주시니 정확도가 올라갔다”고 조언했습니다 ⁵⁰.) 즉, **한 번에 완벽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려 하기보다**, 처음에는 넓게 질문한 뒤 **추가 질문이나 대화로 세부사항을 좁혀가는 접근**이 효율적입니다 ⁴⁸.

• **3) 설계/창작 지향 프롬프트:** 프로그래밍 설계나 시나리오 구상처럼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과업에는 **맥락과 요구조건을 상세히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설계를 도와줘”라는 요청시, 현재 시스템의 규모나 기술스택, 해결하려는 문제점 등을 미리 알려주면 AI가 보다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현재 일 monolithic PHP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트래픽 증가로 성능 문제가 발생 중이다.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장성과 유지보수를 개선할 수 있는 마이크로서비스 전환 방안을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해줘”처럼 맥락+요구를 주면, Deep Research는 관련 성공/실패 사례와 모범사례를 찾아 **구체적인 설계 전략**을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창작 분야(예: 소설 설정 조사)에서는 “1920년대 파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는데, 그 시대 패션, 언어, 사회 분위기를 자세히 조사해줘”처럼 원하는 디테일을 나열하면 해당 주제로 신뢰할만한 자료(예: 역사 다큐, 백과사전, 당시 사진 등)를 찾아 **사실적인 창작 레퍼런스**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요청의 의도와 세부 기대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되, 너무 결과 형식까지 세세히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⁴⁷. “표로 만들어, 5개 항목만, 각주 달고, ~만 참고해”처럼 지나치게 지시하면 오히려 AI의 조사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형식은 예시로 보여주거나 간략히 언급하고 (예: “필요하다면 표를 활용해도 좋다”), 나머지는 AI의 종합능력에 맡기는 편이 **창의적이고 풍부한 결과**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⁴⁷.

• **4) 사실 검증 및 추가 탐색 유도:** Deep Research가 생성한 답변은 출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결과를 검토하며 후속 질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인용 통계가 의심스럽다면 해당 출처를 읽어본 뒤 “위 통계치의 산출 근거를 자세히 알려줘”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는 보고서에 언급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파고들고 싶다면, “X 주제에 대해 방금 답변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관점도 조사해줘”라고 추가 Deep Research를 실행하는 식으로 **연속 연구**가 가능합니다. OpenAI에 따르면 Deep Research 전용 모델은 **장기간 지속적 연구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실제 ChatGPT Pro에서는 한달 250건까지 쿼리가 허용되므로 (Plus는 25건) 주제를 나누어 여러 번 조사해 **큰 그림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⁵¹ ⁵².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프롬프트에 녹여, “우선 A, B, C 영역을 각각 심층 조사한 후 종합해줘”라고 요청하면 AI가 내부적으로도 조사 계획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작업합니다 ⁵³. 구체적으로, Google Gemini의 Deep Research는 사용자에게 **1단계 조사 계획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는데, ChatGPT Deep Research도 사용자가 원하는 세부 방향을 프롬프트로 명시하면 유사하게 **멀티스텝 계획을 수립**해 진행합니다 ⁵³. 요약하면, Deep Research용 프롬프트는 **명확한 목표 제시 → 단계나 관점 나열 (필요시) → 과도한 제약 지양의 원칙**을 따르면 좋습니다 ⁴⁶ ⁴⁷. 아래는 목적별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 (정보조사) "**질문:** COVID-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종합해 주세요. 주요 학술지 논문과 국제기구 보고서를 우선 참고하고, 물류·반도체·자동차 산업별로 영향과 대응 전략을 각각 정리해 주세요."

• (전략기획) "**질문:** 당사와 경쟁사들의 최근 5년 간 기술 R&D 투자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할 유망 기술 분야 3가지를 제안해줘. 각 경쟁사의 투자전략, 특허 동향, 인수합병 사례 등을 조사하고 근거를 들어 설명해줘."

• (코드분석) "**질문:** 내가 제공하는 GitHub 저장소에서 `PaymentProcessor` 클래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찾아 알려줘. 관련 코드 스니펫과 파일 경로를 인용하고, 이 클래스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줘." (→ 파일 구조를 모르는 경우, 먼저 "프로젝트의 주요 모듈과 클래스 구조를 요약해줘" 같이 물어 전체 맥락을 파악한 후 부분 세부사항을 질문하면 효과적입니다.)

이상의 원칙과 예시처럼 프롬프트를 잘 구성한다면, Deep Research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도 사용자 의도에 꼭 맞는 해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실제 OpenAI 전문가들은 “연구 목표를 분명히, 프롬프트는 유연하고 너무 제한하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⁴⁶ ⁴⁷ . 또한 초기 답변을 받은 후 **추가 질문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Deep Research 활용의 핵심 전략입니다 ⁴⁸ .

5. 경쟁 모델과의 비교 (Perplexity, Claude, Gemini 등)

최근 AI 챗봇 업계에는 OpenAI의 Deep Research에 대응하는 “**심층 검색/분석**” 기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¹³ . 대표적으로 **Perplexity AI, Anthropic Claude, Google Gemini** 등이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았으며, Microsoft Bing Chat(코파일럿), xAI의 Grok 등도 맥락은 비슷합니다 ¹³ . 각 모델마다 강점과 약점, 사용자 경험이 조금씩 다르기에, 주요 서비스와 Deep Research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Perplexity AI (Perplexity의 Deep Research 모드):** Perplexity는 원래부터 **검색 기반 답변**으로 유명한 서비스로, 자체 LLM과 Bing 검색을 활용해 출처가 명시된 응답을 제공합니다. 2023년 말~2024년 초에 Perplexity도 ChatGPT를 의식해 “**Deep Research**” 모드를 선보였는데, **질문 당 수십 회의 검색을 수행하고 수백 개의 출처를 읽어가며 종합 답변**을 만들어낸다고 홍보했습니다 ⁵⁴ . 겉보기 개념은 OpenAI Deep Research와 거의 같습니다. 차이점이라면, Perplexity는 **응답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낮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실제 사용 후기에 따르면, ChatGPT Deep Research가 복잡한 쿼리에 10~30분 걸리는 반면 Perplexity는 보통 **3분 이내로 심층 답변을 완료**하며, 내용도 4~9쪽 PDF 분량의 충분한 깊이라고 합니다 ⁵⁵ . 유료 모델 가격도 ChatGPT Pro의 \$200/월에 비해 **Perplexity Pro는 \$20/월**로 접근성이 높습니다 ⁵⁶ . 다만 정확도 측면에서 Perplexity 자체 평가로도 “**일부 벤치마크에서 ChatGPT Deep Research보다 약간 뒤쳐진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⁵⁷ , 한 Reddit 사용자는 “정확도는 몇 %포인트 차이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ChatGPT 쪽이 앞선다”는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⁵⁶ . 또한 Perplexity는 **사용자 데이터 소스 연결 기능이 제한적**이고, 주로 공개 웹만 활용합니다. UI/UX 면에서는 Perplexity 답변도 인라인 인용 링크가 달리고 대화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ChatGPT처럼 **에이전트의 사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지는 않으며**, 보고서 형식도 ChatGPT가 좀 더 체계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Perplexity Deep Research = ChatGPT Deep Research의 경량/저가형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응답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제한된다면 Perplexity가 유용할 수 있지만, **최대한 높은 정확도와 분석 깊이**를 원한다면 여전히 ChatGPT가 앞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⁵⁸ ⁵⁹ .

- **Anthropic Claude (Claude의 Research 기능):** Anthropic의 Claude 2는 **100k 토큰의 방대한 컨텍스트**와 뛰어난 추론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4월, Anthropic은 Claude에 새로운 “**Research**” 모드를 도입하여 ChatGPT Deep Research, Google Gemini 등과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⁶⁰ . Claude의 Research 기능은 여러 단계에 걸쳐 답변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데, **먼저 초기 답변을 생성한 뒤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추가 조사를 반복**합니다 ⁶¹ . 이를 통해 답변을 점점 풍부하게 만들어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며, 마지막에 **참조한 출처들의 링크를 답변에 첨부**합니다 ⁶¹ . Claude도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고 (기본 지식컷 2023 이후 내용도 찾아볼 수 있음), 또한 **사용자가 올린 문서 등 내부 자료**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⁶¹ . 이는 OpenAI Deep Research+Connected Apps와 유사하게 **웹+사용자 데이터 하이브리드 조사**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실제 TechRadar 평가는 Claude의 리서치 모드 결과물 품질이 “ChatGPT나 Gemini의 Deep Research에 필적할 만큼 훌륭”하며 세 서비스 간 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⁶⁰ . **차별점**으로는, Claude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토큰 컨텍스트** 덕분에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많은 자료를 제공해도 그걸 모두 읽고 답변 생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모아둔 데이터가 있다면 Claude에게 통째로 주고 분석시키는 방법도 쓸 수 있죠 (반면 ChatGPT Plus의 16k 한계나 GPT-4 32k를 고려하면 Claude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Claude의 웹접근 리서치 기능은 **최상위 구독자 (Claude Max \$100/월 이상)**에게만 제공되는 등 접근성이 낮습니다 ⁶² . 또 Claude는 대체로 **응답 속도가 매우 빠르진 않지만**, Deep Research 모드에서는 여러 차례 자기참조를 하므로 시간이 꽤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 면에서 Claude는 ChatGPT처럼 별도 버튼으로 리서치를 수행하는 개념보다는, 긴 답변이 필요할 때 자동으로 multi-step reasoning을 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한편 Claude는 대화 스타일이 친근하고 맥락 유지가 뛰어난 장점이 있어, 복잡한 주제도 **대화 풀어나가듯**

설명하는 보고서를 내놓는다고 평가받습니다. 결론적으로 Claude의 Deep Research는 “긴 맥락+강력 추론”을 바탕으로 한 접근으로, ChatGPT Deep Research와 목표는 같지만 구현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ChatGPT가 일부 정확도 면에서 앞서지만, Claude도 지속적 모델 개선과 함께 리서치 에이전트로서 잠재력이 높습니다.

- **Google Gemini (Gemini의 Deep Research 브리프)**: 구글은 2024년 12월 자사 Gemini AI에 “Deep Research” 기능을 추가하며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⁶³. Gemini의 접근법은 **사용자 개입을 허용하는 리서치 플로우**가 특징인데,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먼저 AI가 “**다단계 연구 계획**”을 초안으로 생성하여 보여줍니다 ⁵³. 여기에는 어떤 순서와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할지 단계별로 적혀 있으며, 사용자는 이 계획을 검토해 수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습니다 ⁵³. 승인이 나면 Gemini Deep Research가 웹을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 수차례 피드백 루프를 돌면서 조사 내용을 정련합니다 ⁵³. 최종 결과물은 **핵심 소견들이 정리된 Research Brief** 형태로 제공되며, 각 부분마다 출처 링크가 첨부됩니다 ⁶⁴ ⁶⁵. 예를 들어 Google 측 시연에서는, 사용자가 질문하면 “Step 1: 관련 용어 정의 -> Step 2: 최근 뉴스 검색 -> Step 3: 전문가 의견 조사 -> ...” 식의 플랜이 나왔고, 이를 확인 후 진행하니 그에 맞게 자료를 모아 **요약 브리핑**이 생성되었습니다. **사용자 경험** 면에서 Gemini Deep Research는 “아주 구글다운 AI 활용”이라는 평을 듣는데 ⁶⁶, 이유는 구글 검색 기술 및 방대한 색인에 기반하여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긁어모으고, 익숙한 Google Docs로 **보고서를 내보내 편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⁶³. 실제로 Gemini의 리서치 결과는 **Gemini 앱 내에서 요약본으로 제시되며, 버튼 클릭으로 Google Docs에 보내 추가 편집/공유**가 가능해 업무 연계에 장점이 있습니다 ⁶³. 반면 현재 Gemini Deep Research는 **Google One의 유료 플랜 (월 \$20)**에서 제공되는 Gemini Advanced 기능에 한정되어 있고 ⁶⁷, 학술 논문 등 일부 유료자료는 접근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사용자 피드백이 있습니다 ⁶⁶. 또한 보고서 분량이 ChatGPT보다 다소 얕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아마도 “Brief(브리프)” 형식으로 요점을 상대적으로 간결히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설계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확도/깊이** 측면에서는 ChatGPT Deep Research와 대등하다는 평가부터 약간 부족하다는 평가까지 엇갈리지만, 구글이 보유한 **최신 웹 데이터 접근성**과 향후 **멀티모달 능력**(Gemini 모델의 이미지 이해 등)을 감안할 때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그 외 (Bing Chat, xAI Grok 등)**: Microsoft의 Bing Chat은 GPT-4 기반이지만 이미 웹검색과 정보정리를 잘 해왔고, 최근 Office 365 Copilot과 연계하여 **기업 내부 문서까지 AI가 검색**하는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ChatGPT Deep Research+Connected Apps와 유사한 방향입니다. 다만 Bing Chat은 현재 **대화 중 필요한 시점에 실시간 검색을 곁들이는 형태**이지, ChatGPT Deep Research처럼 한 번에 긴 분석 리포트를 떨구는 방식은 아닙니다. xAI의 Grok은 엘론 머스크가 출범시킨 서비스로, **트위터(X) 기반 정보 접근**과 솔직한 답변을 내세웠으며 웹 브라우징으로 최신 정보를 찾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¹³. 아직 성숙도는 선두주자들보다 떨어지나, “할리우드 영화같이 정부陰謀를 폭로하는 AI” 콘셉트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플레이어들이 속속 등장하며 경쟁하고 있지만, **OpenAI Deep Research만의 고유 강점**도 분명합니다.

ChatGPT Deep Research의 차별화된 장점으로는, 첫째 **탁월한 종합적 정확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비교 테스트에서 ChatGPT Deep Research가 **복잡한 추론과 사실 정확성 면에서 경쟁 모델들을 앞서는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⁵⁹. 이는 OpenAI의 강력한 GPT-4 계열 모델과, 브라우저+Python 도구까지 활용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덕분입니다 ¹. 둘째, **사용자 데이터 연결성**에서 선도적입니다. GitHub나 Dropbox 같은 폭넓은 **외부 데이터 소스 연결을 공식 지원**하는 건 주요 AI 챗봇 중 ChatGPT가 가장 먼저이고, 업무용 SharePoint까지 아우르는 건 OpenAI 생태계의 강점입니다 ²⁶ ²⁹. 반면 경쟁사들은 아직 개인 드라이브 연동이 제한적이거나 일부 파트너사에 한정됩니다. 셋째, **UI 및 사용 경험** 측면에서도 차별화가 있습니다. ChatGPT Deep Research는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사용자가 AI의 생각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고 ⁶⁸, 결과물도 서식과 미디어가 풍부한 리포트 형식이라 **바로 업무 산출물로 활용**하기 수월합니다 ⁶. 예컨대 Sam Edelstein은 Deep Research의 액티비티 패널을 보며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나自身도 새로운 리서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⁶⁸. 이러한 **투명성 있는 진행 피드백**은 사용자 교육 측면에서도 유익하며, 경쟁 모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멀티툴 통합 능력**입니다. OpenAI Deep Research는 훈련 과정에서 브라우저 조작뿐 아니라 Python 분석 도구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¹, 필요하면 데이터 연산이나 그래프 그리기도 수행 가능합니다. 곧 보고서에 **데이터 시각화 결과를 포함**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소식도 있으며 ⁵, 이는 단순 텍스트 요약을 넘어 **데이터까지 다뤄주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과 윤리성** 측면에서 OpenAI의 축적된 경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Deep Research 출시 전 광

범위한 레드팀 테스트와 안전성 향상을 거쳤고 ⁶⁹, 비교적 위험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사실을 확인하는 편입니다 ⁷⁰. 물론 환각이나 실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서, OpenAI도 여전히 주의를 당부하지만요 ⁷⁰.

종합하면, ChatGPT Deep Research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심층 보고서 생성**에 강점을 가지며, **개인화된 데이터 소스 통합과 사용자 경험** 면에서도 돋보입니다. 경쟁 모델들도 각자의 혁신으로 빠르게 추격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Deep Research가 보여주는 **연구 분석의 깊이와 범용성의 균형**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⁵⁸ ⁶⁰. 사용자 입장에서는 **필요와 예산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빠른 요약이 필요하면 Perplexity 등도 고려할 만하고, 구글 생태계에 익숙하다면 Gemini도 편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복잡한 문제를 두루 다루면서, 회사 내부자료까지 끌어와 하나로 묶은 제대로 된 리포트를 얻고자** 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OpenAI ChatGPT Deep Research가 **가장 완성도 높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⁷¹.

- 1 3 10 33 34 35 **Introducing deep research | OpenAI**
<https://openai.com/index/introducing-deep-research/>
- 2 70 **OpenAI adds deep research to ChatGPT, enabling complex web tasks**
<https://www.axios.com/2025/02/02/chatgpt-deep-research-openai-agents>
- 4 19 20 68 **First Impressions of ChatGPT's Deep Research | by Sam Edelstein | Medium**
<https://samedelstein.medium.com/first-impressions-of-chatgpts-deep-research-eb4e1cc1c77c>
- 5 7 8 9 14 49 51 52 **Deep Research FAQ | OpenAI Help Center**
<https://help.openai.com/en/articles/10500283-deep-research-faq>
- 6 29 30 **ChatGPT — Release Notes | OpenAI Help Center**
<https://help.openai.com/en/articles/6825453-chatgpt-release-notes>
- 11 12 13 **OpenAI rolls out a 'lightweight' version of its ChatGPT deep research tool | TechCrunch**
<https://techcrunch.com/2025/04/24/openai-rolls-out-a-lightweight-version-of-its-chatgpt-deep-research-tool/>
- 15 16 17 18 24 27 31 **Connect apps to ChatGPT deep research | OpenAI Help Center**
<https://help.openai.com/en/articles/11367239-connect-apps-to-chatgpt-deep-research>
- 21 22 23 25 32 **Connecting GitHub to ChatGPT deep research | OpenAI Help Center**
<https://help.openai.com/en/articles/11145903-connecting-github-to-chatgpt-deep-research>
- 26 **Introducing Dropbox connector for ChatGPT: Reason across your Dropbox workspace | OpenAI for Business posted on the topic | LinkedIn**
https://www.linkedin.com/posts/openai-for-business_were-rolling-out-our-third-deep-research-activity-7328843829069930497-W7Vo
- 28 **ChatGPT Deep Research Can Now Access SharePoint and ...**
<https://www.thurrott.com/a-i/320924/chatgpt-deep-research-can-now-access-sharepoint-and-onedrive-files>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50 **I didn't think I'd have any use for ChatGPT Deep Research — 7 ways it's improved my daily life | Tom's Guide**
<https://www.tomsguide.com/ai/i-didnt-think-id-have-any-use-for-chatgpt-deep-research-7-ways-its-improved-my-daily-life>
- 46 47 48 69 **Exploring Deep Research: Three Tips for Better AI-Assisted Inquiry - Article | OpenAI Forum**
<https://forum.openai.com/public/blogs/exploring-deep-research-three-tips-for-better-ai-assisted-inquiry-2025-04-28>
- 53 63 64 65 66 67 **Google Gemini can now do more in-depth research | TechCrunch**
<https://techcrunch.com/2024/12/11/gemini-can-now-research-deeper/>
- 54 55 57 58 59 71 **Comparing Perplexity Deep Research, ChatGPT Deep Research, and Kompas AI | by ByteBridge | Medium**
<https://bytebridge.medium.com/comparing-perplexity-deep-research-chatgpt-d-and-kompas-ai-d54980aa58d6>
- 56 **OpenAI Pro vs. Perplexity Deep Search for Research and Reports. Is ...**
https://www.reddit.com/r/ChatGPTPro/comments/1iw4rjk/openai_pro_vs_perplexity_deep_search_for_research/
- 60 61 62 **I tried Claude's new Research feature, and it's just as good as ChatGPT and Google Gemini's Deep Research features | TechRadar**
<https://www.techradar.com/computing/artificial-intelligence/i-tried-claudes-new-research-feature-and-its-just-as-good-as-chatgpt-and-google-geminis-deep-research-features>